

광주FC, 이젠 생존경쟁...2위 김천 상대 승점 사냥

내일 K리그1 32라운드 원정 경기...골 결정력·수비 조직력 정비 '파이널B' 확정...ACLE 원정 가와사키와 승부 전 잔류 총력전

'생존경쟁'을 펼치게 된 광주FC가 2위 김천상무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으로 가 김천을 상대로 K리그1 2024 32라운드 원정경기를 벌인다.

앞선 제주전 0-2 패배로 광주의 파이널A 목표가 무산됐지만 승점은 더 간절해졌다. 광주는 김천상무전에 이어 10월 6일 FC서울과의 홈경기를 가진 뒤 스플릿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시즌 3위에 올랐던 광주는 올 시즌에는 '파이널B'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본격적인 생존 싸움에 앞서 최대한 승점을 쌓아두는 게 광주에 필요하다.

현재 7위에 자리한 광주(승점40)와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2)와는 승점 8점 차. 역시 강등 걱정을 하고 있는 10위 전북현대(승점 34) 11위 대구FC(승점 34)와는 승점 6점 차.

이번 김천 원정에서 승점을 더한 뒤 기분 좋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 나

서는 게 광주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광주는 이번 김천 원정이 끝난 뒤 내달 1일 가와사키와 승부를 펼쳐야 한다.

이틀 휴식 뒤 경기를 치러야 하고 두 경기 모두 원정경기로 진행되는 만큼 부담 많은 일정이다.

이정호 감독이 앞선 제주전 패배 뒤 "나부터 반성하겠다.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광주의 상황이 좋지 않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구경꾼이 됐던 광주는 무더위 속에서 코리아컵, 리그 경기, ACLE 일정까지 강행군을 펼쳐왔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극에 달했다.

열악한 환경도 여전하다. 리그 경기가 진행되는 광주전용구장은 물론 ACLE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상황이 좋지 못하다.

프로 구장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잔디에서 경기가 진행되면서 상대팀은 물론 팬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고, 광주시가 자랑했던 연습구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정호 감독은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가장 절실하다. 앞선 제주전에서도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결국 후반에 승리를 내렸다. 체력적인 부담이 더해지면서 수비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경고 누적으로 쉬어갔던 이경희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김천상무를 흔들어야 한다. 특급 도우미 최경록의 활약도 기대된다.

단단한 수비도 필요하다. 부상에서 회복한 허을과 후반기 복귀해 주전 풀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민기, '강철 체력' 김진호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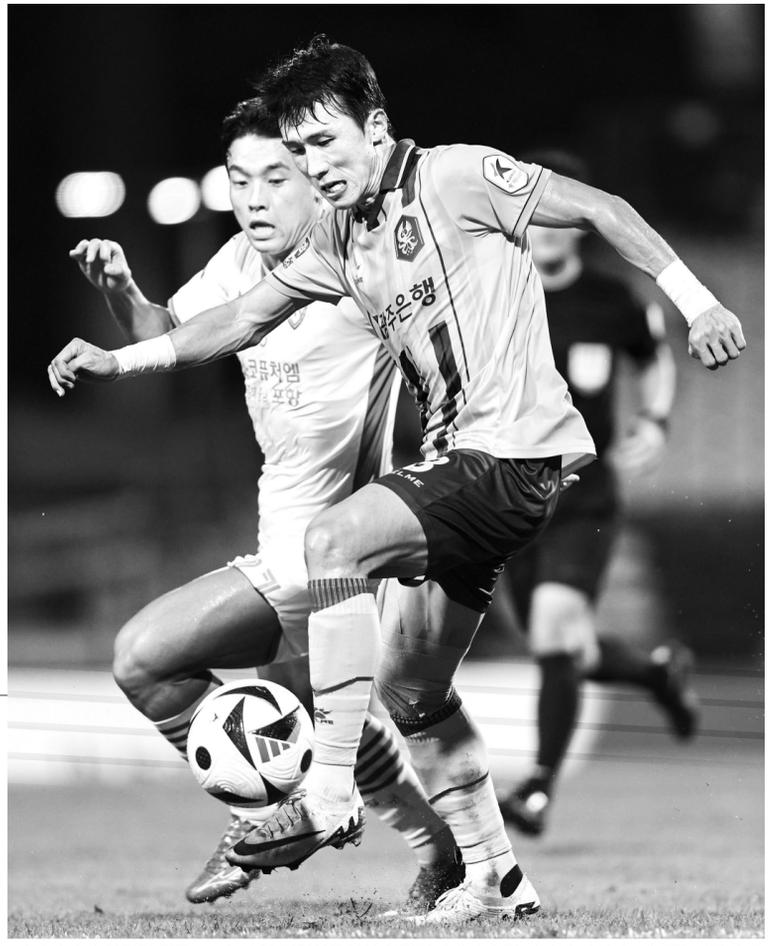
김천은 올 시즌 승점 53을 만들면서 우승경쟁을 벌이고 있다.

1위 울산HD(승점 55), 3위 강원FC(승점 51)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한 만큼 김천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리그 10호골을 장식한 이동경을 주의해야 한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앞선 제주전 패배를 지우고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광주와 1위 싸움 중인 김천이 주말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이널B'가 확정된 광주FC가 28일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베테랑 이민기(오른쪽)가 탄탄한 수비로 팀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 <광주FC 제공>

광주시청 김수린·남구청 이승윤, 양궁선수권 '금 과녁' 합작



혼성단체전 울산 꺾고 1위

이승윤(남구청)과 김수린(광주시청)이 '제56회 전국 남·여 양궁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사진>

이승윤-김수린은 26일 예선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혼성단체전 결승에서 울산의 황석민-이윤지를 5-4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이승윤-김수린은 16강에서 인천(한우탁-김서영)에 6-0승, 8강에서 경기(김예찬-손서빈)에 5-3승을 거둔 뒤, 4강에서 경북(김재덕-이혜민)을 5-3으로 제치며 결승에 진출했다.

혼성단체전은 예선전 기록합계에 따라 남녀 상위 1위 선수들로 시도별 팀을 구성해 치러졌다. 광주는행텐텐양궁단은 여자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미선-안산-김이안으로 팀을 이룬 광주은행은 16강에서 순천시청에 5-3승, 8강에서 현대백화점에 5-3으로 이긴 뒤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이후 LH에게 0-6으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체대)은 각각 남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손흥민 "유로파리그 가라바흐전 승리 이끌겠다"

오늘 UEL 첫 경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캡틴' 손흥민(사진)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와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까.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27일 홈에서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 2024-2025 UEL 리그 페이즈 1차전을 치른다.

토트넘이 2020-2021시즌 이후 네 시즌 만에 유로파리그에 복귀하는 가운데 손흥민은 이적 후 첫 골맛을 본 가라바흐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해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2015-2016시즌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가라바흐를 상대로 토트넘 데뷔 골을 포함한 멀티골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이후 10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주장 완장까지 썼다.

시즌 초반 리그 2승 1무 2패로 기세가 주춤한 토트넘이 가라바흐를 상대로 패승을 거둔다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를 치르고 사흘 뒤인 30일 오전 0시 30분에는 맨유와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리그 3호 골을 노린다.

올 시즌 2라운드 에버턴전에서 마수결이포를 포함해 2골을 넣은 손흥민은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도움 2개를 올려 리그 3경기, 공식전 4경기 만에 공격포인트 생산을 재개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28일 오전 4시 스타드 렌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6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리그1 개막골, 2라운드에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던 이강인이 공격포인트를 추가한다면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 연속 골을 넣고, 매 경기 화려한 드리블과 예리한 패스 등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 선발과 교체 멤버를 오가고 있다.

김민재의 소속팀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과 맞붙는다.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의 기세에 눌려 분데스리가 12연패에 실패한 뮌헨은 땀샘 공파니 감독 체제로 '독일 최강'의 면모를 되찾아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리그 4경기, UCL 1경기 등 공식전 5경기에서 무려 25골을 몰아쳤고 실점은 5개에 불과하다. 김민재는 공파니 체제의 주전 센터백으로 전 경기에



선발 출전에 후방의 안정을 책임졌다. 4라운드에서는 폴타임을 소화하며 브레멘을 슈팅 0개로 꺾는 활약으로 베스트 11 수비수로 선정되는 등 '철기둥'의 면모를 되찾고 있다. 이재성과 홍현석의 소속팀 마인츠는 28일 하이덴하임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연합뉴스

'재기 시동' 정현, 챌린저 테니스 대회 출전

대만서 10월 21일 개막

2018년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올랐던 정현(28·사진)이 10월 대만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출전한다.

정현은 2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0월 21일부터 대만에서 개막하는 ATP OEC오픈 챌린저(총상금 16만4000달러)에 나간다고 밝혔다.

정현은 이 영상을 통해 "대만에서 2015년과 2016년 우승 기억도 있고, 대만의 팬들이나 음식, 문화도 무척 좋아한다"며 "모두 대만에서 만나요"라고 인사했다.

2018년 호주오픈 단식 16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3-0(7-6(7-4) 7-5 7-6(7-3))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4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개인 최고 랭킹도 2018년 19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메이저 4강과 단식 세계 랭킹 19위는 모두 한국 선수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후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던 정현은 지난해 워블던 예선 2회전 탈락 이후 1년 넘게 공백기를 가졌다.

이달 초 일본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ITF) 퓨처스 대회에 두 차례 출전하며 복귀전을 치른 정현은 지난주 총상금 2만5천 달러 대회 8강까지

진출했다.

정현이 10월 출전 예정인 대만 챌린저 대회는 정규 투어보다 한 등급 아래고, 퓨처스는 챌린저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다.

대만 챌린저 대회 결과에 따라 10월 27일 개막하는 서울오픈 챌린저(총상금 13만3250 달러)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